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역사관건립을 위한 결의안

의안 번호	632
----------	-----

제안연월일 : 2004. 10. 25.

제안자 :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국회는 일본군 ‘위안부’라고 통칭되는 일본군성노예제도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자 여성의 인권을 짓밟은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외침과 사회적 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일본은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5년간 90여명의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현재 생존하고 있는 129명의 피해자도 거의 70대 후반에서 90대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이며, 이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일본으로부터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인류역사에 다시는 이러한 성노예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세에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며,

해방 60주년이 되는 2005년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기 위하여, 또한 우리나라가 피해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주권국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역사의 증인으로 생존하고 있는 동안 이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2. 대한민국국회는 우리정부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상을 증언하는 역사관을 조속히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상에 관한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역사관」을 우리 정부가 건립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